

# 自然調和思想

- 未來의 人類를 구하는  
自然觀 -



최민휴  
임업연구원 부장

## 1. 머리말

하늘의 日月星辰, 땅이 바다와 陸地, 陸地에 있는 山川草木이 모두 自然임에도 유독 山林이 自然의 代名詞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林業인들이 自然인 山林을 어떻게 對하고 다룰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먼저 人間에게 自然이란 무엇인가,

即 自然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自然속에 人間도 포함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人間과 自然은 別個라는 二元論과 人間도 自然의 一員이라는 一元論으로 갈린다.

美國의 文化人類學者 프로렌스 크라크혼 博士에 의하면 前者의 例로는 自然服從 文化와 自然調和文化가 있고, 後者의 例로는 自然調和文化가 있다고 한다.

英國이 낳은 世紀的인 史學者 아놀드 토인비 教授의 指摘에 따르면, 人類의 運命을 危機로 몰아 넣고 있는 環境破壞와 精神崩壞의 根源은 歐美中心의 自然支配文化라는 것이며, 1992年 리우地球頂上會議에서도 地球環境破壞가 自然支配文化의 所産이므로 이를 克服하고 새로운 自然觀(예컨데 東洋傳來의 自然調和文化)을 環境이데올로기로 삼아야 한다고 論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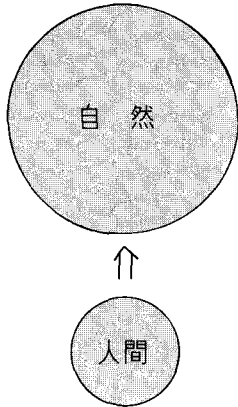
그러면 먼저 프로렌스 크라크혼 博士의 人間이 對하는 3가지 文化類型을 살펴보자.

## 2. 自然服從文化

이는 人間은 自然에 服從해야 한다는 自然觀으로서 멕시코 農民文化가 좋은 例이며, 실상은 舊石器時代 以來 人類共通의 自然觀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멕시코는 山勢가 험하고 氣候風土가 사나워서 人間의 努力보다는 自然力에 따라 豊凶이 左右되었으며, 비, 바람 등 自然力의 主管者가 해와 달이라고 믿어왔다. 멕시코市 근교에 있는 마을에 두 개의 피라미를 쌓고 그곳에서 每年 淸純한 少女의 심장을 도려 해의 神과 달의 神에 犧牲으로 바침으로써 順風順雨를 祈願하였다. 이러한 事實은 우리나라의 沈清傳을 연상케 한다. 아릿다운 효

녀 심청이 공양미 三百石에 몸이 팔려 인당수 깊은 물에 던져져 용왕에게 犧牲으로 바쳐짐으로써 상인들의 海上安全을 祈願한 內容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 自然服從文化的 圖式



### 3. 自然支配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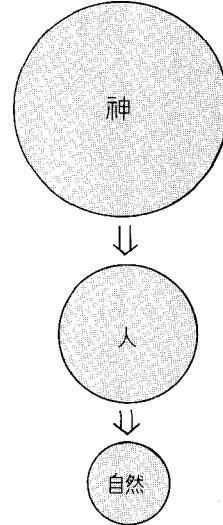
위와 같은 自然服從文化가 自然을 神格化하여 머리위에 받들고 있는 것과는 正反對로 自然支配文化는 自然을 발밑에 깔고 있는 形局이다.

예를들면 歐美文化로서 그 起源은 希臘, 로마文化가 基督教化 하면서 부터였으며 自然으로부터 神性和 人生이 分離된 것이다.

데카르트, 베이컨, 뉴턴으로 代表되는 歐美의 自然論的 自然觀으로서 理數自然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토인비教授의 研究에 의하면 基督教의 自然支配思想의 淵源은 舊約聖書 創世紀 1章 28節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天地萬物을 創造하시고 흙을 빚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후 이들을 축복하시고 자손이 번성하여

### 自然支配文化的 圖式



땅을 정복하고 새와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신 대목을 指目하고 있다. 따라서 西歐文化의 경우 自然은 곧 人間을 위한 神의 施惠物이므로, 그 뜻에 좇아 自然을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自然科學이 發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産業革命을 일으켜 物質的인 풍요를 즐기게 되었으나, 反面에 環境汚染의 擴散과 精神文化의 頹廢는 人類의 運命을 危機에 빠뜨리고 있다고 警告한 바 있다.

自然支配文化의 特色은 人間中心의 (anthropocentrism) 이고 自然非親化的이며, 自然을 人間에 갖다 붙이는 것이 特色이다. 歐美의 建築樣式이나 베르사이유 宮殿의 庭園樣式的 幾何學的인 構圖가 좋은 例일 것이다. 따라서 歐美의 自然保護思想도 人間에 유용하도록 自然에 손질하고 改善하고 管理하는 것이 되며, 헤겔의 이른바 『自然의 人間化』와 相通하는 概念이라 할 것이다.

구태여 林業分野에서 그 例를 찾는다면 收益性 爲主로 大面積 人工單純林造林 같은 경우가 自然支配文化의 所産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自然性의 缺如로 말미암아 病蟲害의 猖獗 등 오히려 逆機能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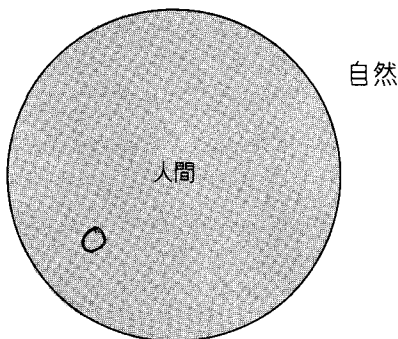
그리하여 1972年 스톡홀름 環境會議와 1992年 리우의 地球頂上會議의 哲學的 意味는, 바로 지난 數百年間에 걸친 自然支配文化의 限界와, 새 時代의 人類와 地球를 救할 수 있는 새로운 自然觀-環境이데오로기의 胎動을 豫告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4. 自然調和文化

自然調和文化는 自然親和的인 文化로서 人間과 自然이 調和되어야 한다는 自然觀이다. 예컨대 東洋傳來의 天地人(神, 自然, 人間) 合一思想이다.

山, 강, 바위, 古木같은 곳은 神이 居住하는 곳이니 사람이 入神하려면 自然과 調和하고, 自然의 循環法則에 順應해야 한다는 것이 韓國의 傳統的인 에니미즘이다.

自然調和文化의 圖式



따라서 東洋의 自然調和思想은 人間이 自然의 품에 안기도록 自然을 自然스럽게 두는 것이 된다. 이는 自然中心的인 思想이며, 人間을 自然에 갖다 붙이는 것이 特色이다. 예컨대 東洋의 山水畫는 높은 山과 넓은 江등 大自然속에 萎少한 人間이 낚시대를 드리우고 歲月을 낚고 있는 風景이 짝 여유 있고 幸福해 보인다.

#### 5. 自然調和思想 各論

##### 가. 老子的 無爲自然

2500餘年前 道家思想의 元祖 老子的 象元篇을 보면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어 오른쪽에 해설을 붙여본다.

이와같이 本性이 스스로 그러한 道는 天地之始라 할 『無』가 道의 體요, 萬物之母라 할 『有』가 道의 用이다.

그러므로 道의 體는 無(=genotype, potentiality)라 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nothing, emptiness)이 아니며, 佛敎에서 이른바 『空』이라 할 만하다. 이에 反하여 道의 用은 有(=phenotype)이므로 萬物의 形態로 들어 남이니 佛敎에서 『色』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老子的 『無爲』란 文字 그대로 無行爲가 아니라, 自然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음이니, 換言하면 自然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길을 가게 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Non-action(無爲) is not meant literary 'inactivity', but rather 'taking no action that is contrary to Nature' - in other words, letting Nature take its own course.

## 象 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有物混成하니, 先天地生이니라.</li> <li>2. 寂兮寥兮하고, 獨立不改하며 (적혜료혜)</li> <li>3. 周行而不殆하여, 可而爲天下母하리라.</li> <li>4. 吾不知其名이로되, 強字之日道하고, 強爲之名曰大하니라.</li> <li>5. 大曰逝하고, 逝曰遠하며, 遠曰反하나니라. 曰=即</li> <li>6. 故道大, 天大, 地大, 人亦大</li> <li>7. 域中有四大하니, 而人居其一焉이라.</li> <li>8. 人法地 하고, 地法天 하며, 天法道 하고, 道法自然이니라</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天地각 생기기 前에 物(道=宇宙生成의 原理=Logos=神)이 혼돈상태로 있었다.</li> <li>2. 物은 소리도 없고(靜而無聲) 형태도 없으나(動而無形). 홀로 서 있어 변하지 않고, (道體)</li> <li>3. 두루 번짐에 멈춤이 없어, 天下萬物의 母體라 할 만하다. (道用)</li> <li>4. 내 이름 알지 못하니 굳이 字號를 지어 道라 부르고, 굳이 이름지어 大라 할 뿐이다.</li> <li>5. 道는 크므로 멈없이 번져가고 (流行不息), 멈없이 번지므로 안 간곳 없이 멀리가며(無所不至), 멀리가므로 오히려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느니라 遠心力→求心力)</li> <li>6. 고로 道는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사람 또한 크도다.</li> <li>7. 世上에 큰것 넷이 있나니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니라.</li> <li>8. 사람은 땅의 법도에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도에 따르며, 하늘은 道의 법도에 따르고, 道는 自然의 법도에 따르느니라. (道의 本性은 스스로 그러함이니, 法道로 삼아 따를 바가 없나니라, 道性自然이니 無所法也니라)</li> </ol>
--	--

### 나. 莊子の 無差別 自然(萬物齊同說)

老子와 더불어 道家思想을 이룩하였던 莊子는 있는 그대로의 自然이 진짜 自然임에도 人間이 善惡, 美醜, 生死등으로 自然을 評價하고 差別을 둠으로써 自然을 손상시킨다고 개탄하였다. 그의 齊物論篇에 『天

地는 與我並生이요, 萬物은 皆吾一體』라는 표현은 인간과 모든 자연물이 자연속에 함께 차별없이 동등하게 한 몸 임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살피건대, 20世紀 科學의 三大發見이라 하는 相對性原理와 量子力學 및 遺傳子(D



님의 뜻을 따라 이를 받아 들이되 그 靈은 鄭重히 저승으로 보내 드리면 이듬해에 더욱 풍성한 膳物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一見 非科學的인 듯 하나, 이가 곧 生命體循環의 本質이며 人類生存의 自然觀이라 주장하고 있다.

古代文明의 發祥地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印度, 中國 등지에는 숲이 없고, 北歐, 北美, 韓半島 및 日本列島에 山林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農耕牧畜文明과 都市文明이 發達하기 위해서는 먼저 숲을 쳐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숲의 神『훈바바』를 殺害하는 儀式으로 부터 비롯하였다. 이에 비하여 韓國과 日本등은 稻作農業일뿐, 높은 산과 숲을 대량 파괴해야 하는 牧畜業의 導入이 늦었던 것이 오늘날 숲이 남아 있는 큰 要因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 山林殘存地域은 일찌기 巨大文明地가 아니었으므로 오히려 未來人類의 自然調和文化的 發源地가 될 可能性이 높다 할 것이다.

#### 라. 韓國의 傳統的인 自然調和思想과 그 役割

그렇다면 과연 우리 韓國의 自然調和思想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研究해야 할 課題이지마는 아직 뚜렷이 綜合 整理된 것이 없는 것 같다.

우선 檀君神話를 보면, 하늘을 다스리던 桓因이 아들 桓雄을 地上에 보내시고, 桓雄은 熊女와 婚姻하여 그 사이에 檀君을 낳으시고, 檀君은 神檀樹 밑에 나라를 세우고 弘益人間의 善政을 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注目을 끄는 대목은 桓雄이 熊女(곰, 自然)와 婚姻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人間과 自然의 結合 即 自然調和思

想의 劇的인 表現일 뿐 아니라 他國의 建國神話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대목이다.

또한 日本의 自然調和思想의 背景이 佛敎가 바로 三韓時代 西紀 552年 百濟 聖明王이 日本에 전파한 것으로서 三韓의 大乘佛敎는 이미 크게 꽃을 피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요즈음 우리 農産物 愛用運動을 위한 宣傳用語로 『身土不二』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 뜻 또한 自然과 人間이 하나라는 뜻임을 말할나위 없다.

風水圖識說도 크게 보면 하나의 自然學이며, 自然의 理致를 터득하지 아니하고는 그 품에 人間이 안기어 福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傳統的인 自然調和思想은 결코 옛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의 生活속에 맥을 잇고 있다. 석달만 비가 안와드온 동네사람이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내고 큰 산이나 고목나무, 큰 바위 밑마다 우리 어머님들은 촛불을 켜고 꿇어 앉아 致誠을 드리시는데, 이걸 어찌 미신이라고 웃고 말 일인가? 아니 차라리 거기에 장차 人類를 救하는 삶의 지혜가, 自然調和思想의 實存的 뿌리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그리하여 오늘날 西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東洋의 傳統的인 自然調和思想의 元祖는 日本이라기 보다는 韓國이요, 中國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봄이면 나무 심고 가을이면 산을 가꾸는 우리의 一常的인 일에, 한 次元 높은 哲學的 意味를 부여해 봄직도 한 일이요, 한 걸음 나아가 半萬年 傳統的 自然調和文化的 體系化하여 온 世上에 傳播한다면 危機에서서 彷徨하고 있는 人類의 앞날에 한 줄기 등불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